

5·18 유공자 교육·취업 지원 등급별 차등화

국가보훈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지원 자녀 30세 이하로 제한

의료비 지원 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이 유공자 등급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제·개정된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훈법률간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생

활수준에 따른 교육·취업·의료 차등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제·개정된 법안은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상이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유공자나 자녀 교육지원이 연령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지원은 30세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일정 등급 미

만 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취업지원 역시 기존에는 유공자 등급, 학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았으나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일정등급 이상 유공자 자녀 1명까지 가능하며 학수도 대상자당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가 일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할 방침이다.

반면 기존에는 5·18 당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구속·구급

등을 당해 기타희생자로 분류된 유공자들에 대해 생활수준에 따라 연리 3% 안팎의 이율로 300만~3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지원법 적용은 법률 시행 이후 신규로 편입되는 유공자들에 해당되며 기존 유공자들은 이전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대출범위 확대는 현행 유공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2분
해질 18시 28분

달출몰 22시 10분
달정 08시 36분

비 온 뒤 쌀쌀

오후에 비 그친후 기온 떨어졌다.

광주	맑음	6/6°C
목포	맑음	5/5°C
여수	맑음	8/9°C
나주	맑음	5/5°C
완도	맑음	6/6°C
구례	맑음	7/7°C
강진	맑음	6/6°C
해남	맑음	6/6°C
장흥	맑음	6/6°C
순천	맑음	7/7°C
영광	맑음	3/3°C
진도	맑음	6/6°C
전주	맑음	5/5°C
군산	맑음	3/3°C
남원	맑음	5/5°C
옥산도	맑음	5/5°C

종량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2.0~3.0m	관심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1.5~3.0m	관심	높음

◇주간날씨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5	-3/7	-1/9	1/13	3/16	6/14

“실력광주 추락·불통조직 걱정”

박표진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교직원들에 퇴임 서한

박표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28일 별도의 퇴임식 없이 이메일 서한으로 심경을 토로하며, 39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박 부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A4 지 2장 분량의 서한에서 “그동안 광주교육은 ‘실력광주’로 전국에 통칭됐으나 지금은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성적하락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심각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

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은 때 시간마다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때를 놓치면 이를 바로 잡는데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교육감은 또 “교육이란 학생이 중심에 있고,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며 조직 내 ‘불통’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이 지침으로 학교를 통제하기보다는 모든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믿고 일선 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교육청의 모습은 학교를 통제하는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유연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박 부교육감은 3월부터 광주대 교수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며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 정신 훼손…집행부 사퇴하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14개 단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무등산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등산협)의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학생생선안연맹 등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2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무등산 사람운동 정신이 훼손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집행부가 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회의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에는 10년 이상 활동한 이사 8명을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무보수로 봉사한 회원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무언의 압력을 넣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의회 목적과 정관에 반하는 세력을 규합, 불법으로 임·위원을 구성해 개발론자, 토호세력을 보호하며 공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위한 어용단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불법 집행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직에서 자진 사퇴하라”며 “현 집행부가 다음달 4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정기총회도 불법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결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무등산 공유화 운동 등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고 보존을 위해 앞장서왔다. 78개 단체가 소속됐고 회원 수가 1만명에 이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리산 ‘입산시간지정제’

들철(3~11월) 새벽 4시, 겨울철(12~2월)은 새벽 5시부터다.

남부사무소, 오늘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는 1일부터 지리산 입산 가능시간을 계절이나 탐방로별로 제한하는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 가능시간은 모든 탐방로가 여

름철에 화엄사에서 노고단을 오르려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등산을 시작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엔 입산이 통제된다. 계절이나 탐방로별로 입산 가능시간을 지리산국립공원(1899-3723), 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26@

현대신한카드 [현대백화점 카드/현대카드S 포함]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3.1(금)~3.10(일) 증정장소 9층 사은데스크

30만원이상 구매시	1만 5천원 현대백화점상품권
60만원이상 구매시	3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100만원이상 구매시	5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당일 본인 구매 영수증에 한하여 합산가능하며,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증정 불가합니다.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가전, 식품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 (단, 소형가전/건강식품은 100% 인정)
 양곡, 상품권, 문화센터, 여행사, 골프용품, 임대대장(안경정/식당가 등) 및 일부 매장은 증정 대상에서 제외
 상품권 수령 후 일부금액 취소시 상품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행사 종료 후 잔액에 대한 상품권 지급 불가)

「가전·가구/명품/모피/준보석」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3.1(금)~3.10(일) 증정장소 9층 사은데스크

당일 200/300/500만원이상 구매시
 10/15/25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현금카드+상품권/단일브랜드 기준
 8층 가전/3-4층 모피류/1층 명품·준보석 브랜드에 한합니다.
 ※당일 본인의 구매 영수증에 한하며,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해 증정하지 않습니다.
 가전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단, 소형가전은 100% 인정)

현대백화점 HYUNDAI

대한민국 아웃도어의 초대형 행사

코오롱 스포츠 & 아웃도어 대전

기간 : 3.1(금) ~ 3.8(금)

8층 대행사장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

기능성티셔츠 70,000원

재킷 (내피포함) 170,000원

등산화 147,000원

블랙야크 BLACKYAK

기능성티셔츠 69,300원

기능성바지 76,300원

바람막이점퍼 124,600원

네파 NEPA

기능성바지 109,500원

바람막이점퍼 108,500원

방수재킷 199,000원

K2 THE NORTH FACE K2

기능성티셔츠 59,000원

기능성바지 69,000원

바람막이재킷 51,000원

라푸마 Lafuma

기능성바지 119,000원

고어텍스재킷 264,000원

트레킹화 120,000원

트렉스타 TrekSta

기능성바지 64,000원

등산화 69,000원

고어텍스워킹화 112,500원

9층 크리스탈홀

코오롱 스포츠 대전

1973년 이 땅에 처음으로 등산의류와 용품을 선보인 후, 지금까지 국내 정상자리를 지켜온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기능성티셔츠 41,400원

기능성바지 93,000원

방한재킷 (내피포함) 216,000원

고어재킷 200,000원

등산화 126,000원

배낭 84,000원

· 40만원이상 구매시 물품 증정(日 40명 한정)

KOLON SPORT

Special Gift

- 브랜드별/금액대별 사은품을 드립니다. (한정수량)
- 자세한 사항 매장 고지서 참조 하세요.